

## 지역특성에 따른 면소재지 공간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윤준상\* · 김성록\*\*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 국문요약

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 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산어촌지역 중 하나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거점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개발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나, 대상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계획에 의해 추진된 각 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수립된 계획의 성패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안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며, 이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에 달려있다. 즉, 계획수립지역의 주민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결망'분석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산어촌지역, 공간계획

- \* 주저자(윤준상) 전화:041-330-1404; email: [jsyoon@kongju.ac.kr](mailto:jsyoon@kongju.ac.kr)  
340-7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교수)
- \*\* 교신저자(김성록) 전화:041-330-1427; email: [isoiso@kongju.ac.kr](mailto:isoiso@kongju.ac.kr)  
340-7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조교수)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현상 등에 의해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농산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배후마을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점 공간 역할을 담당하는 면소재지의 기능은 더욱 축소되었다(조은정 외, 2009). 이러한 면소재지의 기초서비스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인근 도시 및 읍 지역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면소재지 기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점공간 역할을 담당하는 면소재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지역 현황 및 주민의견조사, 개발여건 등을 분석하여 외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1.2. 대상지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로 행정구역상 만수리에 속하며, 만수리는 2개의 행정리(만수1리, 만수2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를 살펴보면, 총 7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는 428명 여자는 442명이다(2011년 기준 외산면 행정자료). 대상지를 가로지

르는 국도 40호선 및 606지방도를 통해 부여군 중심지 및 인근 보령시와 청양군과의 접근이 양호하여 부여의 서북부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상지역 내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무량사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지역의 중심가로가 협소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기능의 약화, 주차 및 편의시설 등의 부족 등으로 지역거점기능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면소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2. 이론적 배경

### 2.1. 지역특성

지역특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과는 배타적으로 공유된 상징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것이라는 정서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경우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특성은 근대화 및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행태에서 탈피해 지역의 문화, 개성 그리고 내생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김태경·서원석, 2012).

계기석·천현숙(2001)은 지역특성의 확립을 위해서 자립, 자위, 자치의 삼위일체를 보장하는 분권체계의 확립이 필요한데, 이는 다른 지역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는 동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축적된 고유한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Relph(1976)는 지역특성을 다른것과 구별되게 하는 장소가 가진 동일성 또는 정체성과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동일한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Tuan(1977)은 장소에 대해 지역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며 인간과 장소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특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경우 무량사와 같은 타지역과는 배타적으로 공유된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5일장 및 금융기관의 입지는 외산면뿐만 아닌 내산면 등과 같은 인근지역을 포함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상지역의 면소재지 기능활성화는 외산면을 포함한 부여 서북부 지역의 거점기능의 회복을 의미하며, 대상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타지역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대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그 법적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와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를 준용한다. 대상지역은 2012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문화복지, 경관개선 등의 전반을 다루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문계획이 아닌 읍면소재지를 이용하는 배후마을 및 읍면소재지 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시설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종합계획이다. 즉,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읍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일반현황 조사, 지역특성 조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하였으며, 그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대상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통하여 지역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의 개발여건을 예측하여 기본구상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이해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면담, 설문,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정확한 개발수요 및 여건을 파악하였으며, Davies의 기능지수법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중심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대상지역의 SWOT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 후 공간구상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끝으로 계획과정에서 도출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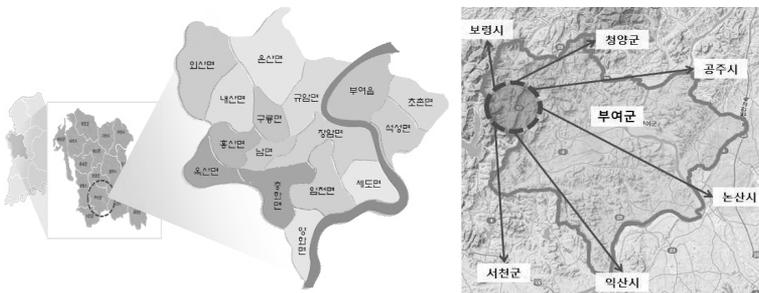
<그림 1> 기본계획 수립체제

## 4. 대상지역 분석

### 4.1. 대상지역 일반현황

대상지역이 속한 부여군은 충청남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청양군, 동쪽과 동북쪽으로는 논산시와 공주시, 서쪽과 서남쪽으로는 보령시와 서천군, 동남쪽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와 경계하고 있다. 부여군의 행정구역은 1개읍(부여읍) 15개면(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여군의 총면적은 624.50km<sup>2</sup>으로 충청남도의 7.2%를 점유하고 있다. 대상지역이 속한 외산면의 면적은 56.02km<sup>2</sup>로 은산면, 부여읍에 이어 세번째이다(부여군, 2012). 대상지역은 부여군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보령시와 서천군 등 서해안과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부여군과 접하고 있는 공주, 논산, 익산 등의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대상지역으로 보령시와 청양군을 연결하는 국도인 40번 국도와 606번 지방도가 가로지르고 있어 많은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상징



〈그림 2〉 대상지역 위치도

하는 무량사 및 5일장을 소개하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경관의 부재로 특징적인 도로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사무소 중심으로 대부분의 가구 및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혼재된 주거양식, 고채도의 원색지붕, 노후주택 및 공가, 폐가로 인해 경관의 질을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권역 내에서 무량사, 무진암, 김시습부도 등 오랜 역사자원과 산신제와 장승제 같은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제례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안내시설과 같은 방문객 유인을 위한 요소가 부족하다. 대상 지역을 흐르는 웅천천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보령과 서천의 앞바다로 유입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1급수에서만 자라는 동자개 등이 서식하며, 수리바위쪽 웅천천의 경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주차 및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만수천은 마을 내 소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부여군, 2012). 따라서 만수천과 웅천천에 대한 경관관리와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4.2.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특성 분석

### 4.2.1. 개발수요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각 사업간의 기능,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및 외산면 주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의 개발의견 수립은 상행식 개발방식을 지향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상지역의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는 대상지역 주민 총 733명 중 10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의견조사 응답결과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67	66.3%
	여자	34	33.7%
	계	101	100%
연령	30세 미만	14	13.9%
	40세~49세	24	23.8%
	50세~59세	41	40.6%
	60세 이상	22	21.8%
	계	101	100%

구분	전혀불필요함	불필요함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함	계
문화센터	빈도(명)	0	0	5	12	84
	전체(%)	0	0	5.0	11.9	83.2
세천정비	빈도(명)	0	0	5	20	76
	전체(%)	0	0	5.0	19.8	75.2
주차장정비	빈도(명)	7	7	28	22	37
	전체(%)	6.9	6.9	27.7	21.8	36.6
등산로정비	빈도(명)	1	1	9	32	58
	전체(%)	1.0	1.0	8.9	31.7	57.4
조깅코스	빈도(명)	0	0	8	26	67
	전체(%)	0	0	7.9	25.7	66.3
가로경관개선	빈도(명)	1	3	11	27	59
	전체(%)	1.0	3.0	10.9	26.7	58.4
인공폭포 조성	빈도(명)	24	31	19	5	22
	전체(%)	23.8	30.7	18.8	5.0	21.8

외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수행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주민수요 조사결과, 문화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4.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천정비 4.67, 조깅코스, 등산로정비, 경관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의 경우 외산면의 역사문화자원 안내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며, 무량사 관광객 및 권역 방문객의 유입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세천정비의 경우 대상지역을 가로지르는 웅천천과 만수천의 정비를 통한 지역경관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대상지역의 주차장은 총 57면으로 면사무소, 무량사, 농협, 우체국 등에 혼재되어 있다.

노후된 기존 주차장 정비 및 신규주차장 확충으로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회복, 무량사 등의 방문객 유입여건 개선, 권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의 경우 무량사 경내에서 진입하는 등산로와 연계한 정비 및 편의 시설 비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규방문객 유입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깅코스(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조성사업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6%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활용한 권역 중심도로 가로경관 개선 및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58.4%로 나타났다. 웅천천 중 수리바위 일대의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경우,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주민요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의견으로는 마을 방송장비 교체, 권역 공동 목욕탕 설치, 지역 하수관 정비사업 등을 요구하였다.

#### 4.2.2. 외산면 중심기능 위상분석

중심지의 계층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성을 측정해야하는데, 중심성은 일정 중심지가 주변의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크기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심지의 인구수, 중심기능수, 기능체수가 지표가 되고 중심지 외부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중심지로 이끌리는 견인력이라

할 수 있다(Marshall, 1971). 정주계층구조에서 중심지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수치적 표현을 중심성지수(Index of Centrality)하는데, W.K. Davies는 중심지 시설의 입지계수(LQ)를 이용하여 중심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기능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Davies, 1967).

첫째, 각개 중심지가 공급(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 또는 점포의 종류(기능, 시설)와 개수를 조사하여 기능시설 유형별 보유 상황을 파악한다.

둘째, 각 기능시설별 입지계수를 계산한다.

$$C_i(\text{특정기능}i\text{에 대한 입지계수}) = \frac{t_i(\text{기능}i\text{를 갖는 점포수})}{T_i(\text{대상지역내 기능}i\text{를 갖는 점포수})}$$

셋째, 분석대상 전체가 보유한 중심성치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개별 중심지가 갖는 측정기능에 대한 중심성의 척도는 점포수에 비례한다.

$$C_{Vi}(\text{중심지의 } i\text{기능에 대한 중심성치수}) = C_i \times t_i$$

넷째, 기능지수는 개별중심지가 갖는 중심성의 척도는 개별기능에 대한 중심성지수의 총화이다.

$$F_i(\text{개별중심지의 기능지수}) = \sum_{i=1}^n C_{Vi}(\text{여기서 } n: \text{기능시설 종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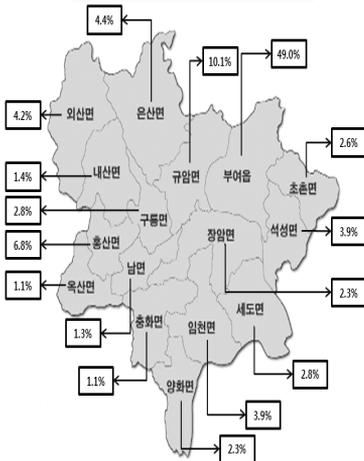
부여군의 중심기능 위상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지역이 속한 외산면의 중심기능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12년 부여군 사업체 총조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생산기능과 서비스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 <그림 4>, <표 2>와 같다.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부여읍(49%), 규암면(10.1%), 홍산면(6.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지역인 외산면은 4.2%로 분석되었다. 부여읍은 사업체수 기준 기능지수 비율이 부여군 전체의 약 1/2을 차지하고 있어, 부여군은 읍소재지의 기능 및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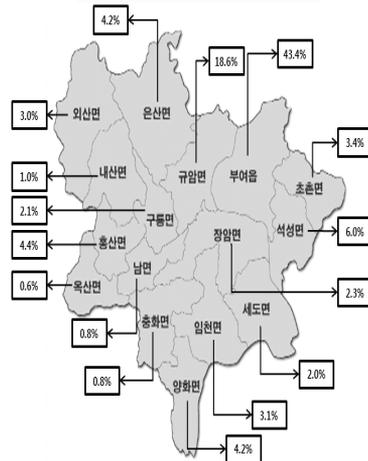
타났다. 외산면의 경우 생산기능보다는 서비스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부여읍(43.4%), 규암면(18.6%), 석성면(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지역인 외산면은 3.0%로 분석되었다. 부여읍은 중사자수 기준 기능지수 비율이 부여군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부여읍의 기능 및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지역인 외산면은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기능보다는 서비스기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대상지역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하여 부여군 서북부지역의 외산면, 내산면 및 구룡면 일부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점기능 이외에 무량사, 수리바위 등과 같은 외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배후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사업체수기준 중심성 분석



〈그림 4〉 중사자수기준 중심성 분석

〈표 2〉 부여군 기능지수

구 분	기능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기능지수	사업체수	기능지수	종사자수
부여읍	생산	185.00	236	1,018.44	1,596
	서비스	2154.16	2087	7,820.64	6,776
	계	2339.16	2323	8,839.08	8,372
은산면	생산	45.88	35	311.34	282
	서비스	163.08	171	547.61	573
	계	208.97	206	858.94	855
내산면	생산	14.15	11	33.06	44
	서비스	52.66	55	168.10	152
	계	66.80	66	201.16	196
홍산면	생산	39.91	41	127.51	181
	서비스	285.13	284	764.48	679
	계	325.03	325	891.99	860
남면	생산	15.06	11	21.30	31
	서비스	48.20	51	135.99	120
	계	63.26	62	157.29	151
양화면	생산	10.10	12	713.78	355
	서비스	100.31	98	134.39	236
	계	110.41	110	848.17	591
장암면	생산	31.51	21	270.52	189
	서비스	80.52	87	206.51	253
	계	112.03	108	477.03	442
석성면	생산	84.54	42	992.99	519
	서비스	101.05	119	237.65	389
	계	185.59	161	1,230.64	908
규암면	생산	53.96	58	2,371.29	1,549
	서비스	427.38	423	1,422.33	1,838
	계	481.35	481	3,793.62	3,387

외산면	생산	30.10	28	61.31	102
	서비스	171.07	173	545.19	466
	계	201.17	201	606.50	568
구룡면	생산	34.19	24	153.65	140
	서비스	99.30	106	275.08	287
	계	133.49	130	428.73	427
옥산면	생산	15.13	10	18.25	26
	서비스	37.87	41	110.45	98
	계	53.00	51	128.70	124
충화면	생산	3.86	5	3.77	12
	서비스	46.53	45	149.91	116
	계	50.39	50	153.68	128
임천면	생산	30.40	27	101.83	136
	서비스	155.03	158	522.52	472
	계	185.44	185	624.35	608
세도면	생산	20.94	19	71.66	93
	서비스	112.26	114	341.40	311
	계	133.21	133	413.06	404
초촌면	생산	60.65	29	523.71	296
	서비스	65.33	78	177.48	26
	계	125.97	107	701.19	560

#### 4.2.3. 대상지역 SWOT분석

대상지역의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중심기능 위상분석을 종합한 SWOT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강점극대화 전략으로는 거점시설 확충을 통한 근린생활기능 확대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정주환경 및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5 일장을 포함한 지역상권활성화와 중심시가지 경관정비를 통한 약점 개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회활용 전략으로는 무량사를 중심으로하는 관광인

프라 개선과 이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면소재지 기능강화와 더불어 관광기능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협극복전략으로는 지역을 포함한 배후지역의 수요를 감안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부여 서북부 관광자원 클러스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 SWOT분석결과

강점	Strengths	Opportunities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량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연자원 보유</li> <li>• 양호한 접근성</li> <li>• 권역주민들의 인식제고</li> <li>• 의사결정 및 수립기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상 관광핵심거점화 계획</li> <li>• 지속적인 귀농 귀촌 확산</li> <li>• 농촌 농업에 대한 긍정인식 확산</li> <li>• 농업관광의 지속적 증가추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소재지로서의 상권 침체</li> <li>• 거점면소재지로의 기초서비스 기반 열악</li> <li>• 소재지 중심가 가로경관 불량</li> <li>• 전통시장 쇠락 및 관광객 편의시설 열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확대에 의한 농업개방 확대</li> <li>•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인구유출</li> <li>• 인구의 지속적 감소</li> <li>• 인근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li> </ul>	
약점	Weaknesses	Threats	위협

## 5. 대상지역 종합정비 계획수립

### 5.1.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설정

비전 및 목표는 대상지역이 지닌 본질적 요소와 함께 주민의견, 관련 계획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박진욱, 2012). 대상지역 내 공간적 위계와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업의 파급효과의 극대화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의 정비와 경관개선을 통한 생활만족도 및 정주만족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지역은 면소재지

로써의 중심기능 수행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 역사자원인 무량사를 활용하여 부여군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 중심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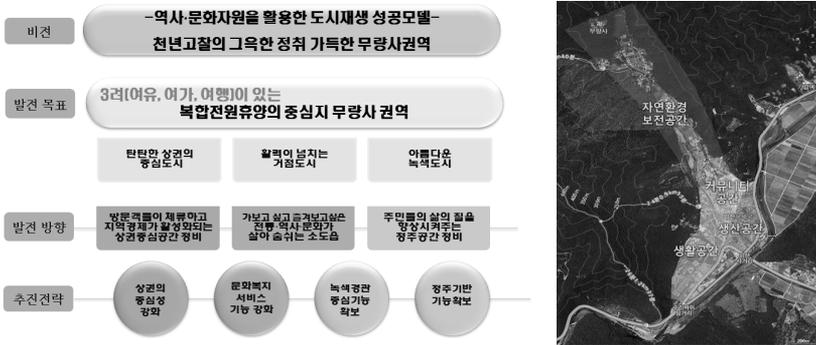
발전목표로 “3려(여유, 여가, 여행)가 있는 복합전원휴양 중심지 무량사 권역”, 세부 목표로 탄탄한 상권의 중심도시, 활력 넘치는 거점도시,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설정하고, 그림과 같이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5.2. 지역특성에 따른 공간구상

대상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개발축을 연계한 공간 정비를 목표로 면소재지의 기능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와 배후지역내 공동체 활동과 대상지역의 공간적·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SWOT 분석 결과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을 바탕으로 문화·복지 중심의 커뮤니티공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생산공간,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및 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정주기반 확충에 중심을 둔 생활공간,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공간의 4가지 중심공간 개발 축을 설정하였다. 국도 40호선 및 지방도 609호선에서 권역내로 진입하게 되는 동선구조에 맞춰 인구의 유입능력을 제고한 동선계획의 수립 및 발전 축을 설정하고, 권역 문화센터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행정중심의 면사무소와 향토시장의 연계를 최우선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대상지역의 중심가로인 외산로를 기점으로 우측에 5일장 장터, 하나로마트, 우체국, 농협, 음식점 등이 혼재된 상태로 입지하고 있으며, 시장공간은 경우 주출입구의 부재와 주차공간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권역 내 녹지시설 및 주민교류공간, 권역주민의 휴식공간 등이

부족하므로 정주여건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간활용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5일장 장터과 외산면사무소의 연계축 형성을 위한 핵심시설의 도입 및 주변 정비로 복합적인 이용이 용이하도록 동선 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량사를 중심으로 자연자원 및 역사자원의 보호를 넘어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4〉 공간구상도

### 5.3. 개발세부사업 선정

대상지역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요구도, 주민수혜도, 인구정주효과, 개발전략 부합성, 정책목표 부합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도출사업은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세부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선정기준
이미지 및 인지도	외산면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인가?
주민수용성	인근소도시와 배후농촌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
거점성	외산면을 거점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사업인가?
주민의사반영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인가?
주민참여형 사업	외산면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삶의 질 향상여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자원의 운영 및 관리상태가 양호 한가?
자원의 특성 반영여부	지역자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인근도시와의 연결성	사업으로 인한 배후도시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가?
관련법적사항검토	사업시행 관련 연계부서와 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업인가?
사업운영주체여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있는가?
행정기관 지원가능사업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관심 유도형 사업인가?

세부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주민수용성, 거점성, 주민의사반영, 주민참여형사업, 삶의 질 향상여부,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자원의 특성 반영, 인근도시와의 연결성, 관련법적사항검토, 사업운영주체여부, 행정기관 지원가능성 등 12가지의 선정기준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문화복지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체육공원리모델링, 무량사 주차장정비, 마을방송시설정비, 향토5일장 정비, 권역안내시설 조성, 중심가로 경관개선 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5〉 세부사업 및 기대효과

세부사업	기대효과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역중심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화합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공동 이용시설 현대화를 통한 주민편의
체육공원 리모델링	핵심시설간의 유기적 연결 및 주민복지
무량사 주차장 정비	지역 역사문화자원 이미지 제고, 이용만족도 제고
마을방송시설 정비	지역정보화 및 정보전달 효율성 강화
향토5일장 정비	이용 편의제공을 통한 시장 활성화
권역안내시설 조성	시설 및 지역자원의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중심가로 경관개선	주민 안전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 6. 결론 및 제언

유럽, 일본 등 OECD국가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박덕병 등,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개발정책의 대상인 일반농산어촌의 비율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는 120개 시·군(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지역)에 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중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의 면소재지(만수1리, 만수2리)로,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일반현황조사, 현지조사, 지역통계자료 분석 및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조사, 외산면 중심기능 위상분석, SWOT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도출하였다. 대상지역은 면소재지로써의 중심기능

수행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 역사자원인 무량사를 활용하여 부여군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 중심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거점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개발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나, 대상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계획에 의해 추진된 각 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부터 일반농산어촌계획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신규사업유형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컨설팅기관 또는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의견이 강화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역시 추진위원이나 이장 반장 등 주민 대표의 참여에 비해 일반주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박은병 등, 2012). 수립된 계획의 성패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안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며, 이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에 달려있다. 즉, 계획수립지역의 주민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결망'분석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계기석·천현숙. (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태경·서원석. (2012). 근린공간요소를 고려한 지역특성이 광역공동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연구*, 28(3), 63-82.
- 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박덕병·이민수·손은호. (2008). EU국가의 농촌개발정책:스페인 엑스트라마두라, Jeta Vallet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15(4), 551-576.
- 박은병·김성록·윤준상. (2012).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여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9(2), 435-463.
- 박진욱·엄봉훈. (2012).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농촌계획*, 18(3), 187-200.
- 부여군. (2008). 2020년 부여군 기본계획
- 부여군. (2012). 2011년 부여군 통계연보.
- 부여군. (2012). 충청남도 외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 조은정·최수명·김영택·고영배·임창수. (2009). 농촌거점면 지역의 중심기능 이 용성향 분석. *농촌계획*, 15(4), 125-134.
- Davies, W.K., (1967). Centrality and Central Place hierarchy, *Urban Studies* 4, 61-79.
- Marshall, J. U., (1971). The location of service twons,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3, 6-8.
-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 Tuan, Y.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ceived 10 May 2013; Revised 23 May 2013; Accepted 5 June 2013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pace Planning on Myeon Center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Junsang Yoon · Sungrok Kim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 Abstract

Although rural areas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land area of South Korea, most of them are deteriorated and living environment is inconvenient. In addition, the migration of young generation to urban areas and ageing have reduced the population and caused not only cavitation phenomena of villages but also stagnant communities. As for one of the rural areas, the seat of Myeon Office located in Oesa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this study presented not a plan only for strengthening hub functions but the methodology of the complex development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n seat of Myeon Office.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function of the seat of Myeon Office,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plans based on hardware. However, empowerment of the residents in the targeted areas also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In other words, each project promoted by the plan will be mainly operated by the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of thi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established plan is based on the accurate survey of the issues of the targeted areas and demand, and this depends on participation and positive response of the residents of the

targeted areas. That is, the method as a 'local community network'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area.

**key words** :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n Seat of Myeon Office,  
Rural Area, Space Planning



Junsang Yoon is a professor of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e-mail) jsyoon@kongju.ac.kr, phone) +82-41-330-1404



Sungrok Kim is a assistant professor of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Regional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Faculty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e-mail) isoiso@kongju.ac.kr, phone) +82-41-330-1427